



# 기독일보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42호

## 예장 통합, 부총회장 선거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 시행

입증될 경우 최대 10배 포상... "투명한 선거 문화 위해"

모든 신고,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  
모든 구성원 적극 참여 동기 부여할 것  
부총회장 예비후보, 목사 3명 장로 2명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익서 목사)가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신고자에게 조사를 거쳐 그것이 입증될 경우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 이하 선거위)는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위는 지난 3월 회의에서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시,

선거위가 조사해 입증이 되었을 경우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임원회는 이를 총회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했고, 규칙부의 시행 청원이 있는 뒤 지난달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다.

선거위에 따르면 총회 선거법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진한 사항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부칙에서 '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시,



예장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한규 장로(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아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3항은 '금품수수에 대해 "선거운동 명목

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총회임원선거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기간 중 특정한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할 시, 선거위는 임원회가 해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 등록 후에는 자체 결의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거위원장인 박한규 장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제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또는 제공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선거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경제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위는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모든 신고는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

된다고. 그러면서 "이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 총회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는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광주남문교회), 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전주시온성교회)다.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는 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 성덕교회),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 이상 가나다 순)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본등록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된다. 김진영 기자

##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삶을 주님께 던지자"

예장합동, 13일 새로남교회서 '목양아카데미 One Day 세미나: 사역자여 일어나라'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13일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목양아카데미 One Day 세미나-사역자여 일어나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류응렬 목사(와성진중장로교회)는 '사역자여 천명으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류 목사는 "기독교 역사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발전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과 극한의 고문을 당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다"며 "그 이후 예수 믿음으로 화를 당하는 등 숭한 위기를 극복한 결과가 종교개혁이다. 한국교회도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도 그가 사도가 될 때까지 빛을 보았다. 베드로가 숭한 실패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애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

교단에 오르지 말아야 할 목사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에 감격이 없는 자'라고 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목회자의 자격'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슴 속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며 사는가"며 "미국에서 애즈베리 부흥이 지난해 유망했다. 미국 부흥을 거둔할 때 DL 무디 목사는. 그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했다.

그는 "DL 무디 목사의 최종학력은 유치원이고 유년 시절 구두닦이로 일했다. 그러다 그는 주님을 만났다. 무디가 이런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한 캠브리지 학생이 그의 부족한 문법을 지적했을 때 무디는 '나 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전하는데, 자네는 명석한 두뇌로 주님을 위해 사는가'라고 되물었다. 충격을 받은 캠브리지대학 학생들은 캠브리지 세븐을 조직하고 중국 등 각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CT 스터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며 40년 동안 중국과 인도, 콩

고 선교사로 사역했다"고 했다.

류응렬 목사는 "사도 바울-베드로도 주님을 진짜로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너 있는 모습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열등감 속에 제들어 인정 욕구에 시달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에 빛이 났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베드로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나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가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와 아닌 자로 보인다. 아무리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측은하게 보인다"며 "그러나 목회하면서 전도 열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으니 우리는 목회와 설교에 시간이 뺏겨 영혼을 향한 관

심이 사라질 때도 했다"고 했다.

그는 "사도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운운하나 우리 가슴 속에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신자들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눈물과 전도 열정을 되찾으면 위기는 쉽게 극복이 된다"고 했다.

류 목사는 "모라비안 선교회의 창시자 진젠도르프는 '내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개혁 이후 200년 동안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동일 기간 모라비안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적을 정도로 모라비안들은 선교에 열정적이었다. 하늘의 생명을 마신 사람이 이후 가질 유일한 관심은 예수와 그 복음 전교"라고 했다.

이어 "주님 나라 가면 단 하나 우리가 전도한 사람 등 영적 가족을 만났다. 이들이 '이분으로 인해 하늘나라에 왔다고 고마워할 그 광경을 꿈꾸지'고 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즐겨워한다. 예수를 만난 뒤 베드로와 바울은 극한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이 축복의 결과라고 말하는 시대를 마주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류응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를 따라라고 하셨다. 예수를 따르려는 여러분은 과연 고난을 감내하는가"라고 했다.

류 목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모든 지위와 명예, 재산을 내려놓을지라도 영광스러운 특권일 것"이라며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에 비하면 배설물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생명을 맛보아 썩어지는 땅의 배설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한 달을 살아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삶을 주님께 던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하늘나라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구나 고맙다'는 귀한 칭찬을 들을 날을 기대하자"며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진심으로 바라신다. 한국교회가 깨어난다면, 중국중동-유럽 부흥의 불길은

불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류 목사의 강연 외에도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가 강연을 전했으며, 앞서 개최 예배에서는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설교를 했다.

이어진 트랙 강연에선 이상훈 교수(전 폴라리안학교 선교학)가 '선교적 교회를 통한 교회, 하나님교회 방성일 목사가 '예배 기획에서 실제까지, 임종구 목사(대신대학교 교수, 푸른초장교회 담임)가 '총회 역사와 신학에 따른 목회적 적용,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 담임)가 '복음이 능력 되는 교회,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성경적 성교육 개론과 교육 및 실천방법, 백은실 사모(한국교회협의회 전문교역자)가 '신앙의 다리를 놓는 사람 네 마음에 새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지선 전도사(산양사역자)가 콘서트를 주관하고, 기도회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www.teddypalace.kr

추승인

**초대형 호재!! 이곳을 주목하라!**

미국 사립 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2026년 제주 상륙**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은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PK부터 12학년까지 63학급, 1354명으로 오는 2026년 9월 14일 개교할 예정이다. ... 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학교승인 #테디팰리스

건설분야의 대표주자 **DL이앤씨(舊 대림산업)**가 시공한

**하이엔드 라이프 테디팰리스 리조트**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면 테디팰리스가 아닙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클래스가 다른 명품 주거 단지!!**

방문고객 **1박 체험 숙박 이벤트** (5.1~5.31)

**마지막 6차분**

**8세대 분양개시**

국제학교 통학버스 전용 (벤츠스프린터)

총190세대

26세대 단독형 (271m)	116세대 빌라형 (182m)	48세대 빌라형 (207m)
-----------------	------------------	-----------------

법인 대출 60%

주택수 **無**    중부세 **無**    보유세 **無**

**1811-0313**

방문예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34번길 204

시공사 **DL E&C**    신탁사 **KB부동산신탁**